

주요개념 : 전문직화, 전문직단체, 일제시대, 조선간호부회, 조선간호부협회

일제시대의 두 간호단체에 관한 고찰(考察): 조선간호부회(朝鮮看護婦會)의 간호수준 향상 노력과 조선간호부협회(朝鮮看護婦協會)의 사회 활동

이 꽃 메*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Moore는(전병재·안계춘·박종연, 1995에 인용됨) 직업(occupation)이 전문직(profession)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문직의 특성을 전업직(full-time job)으로의 확립, 소명 의식, 직업조직, 높은 교육수준, 봉사지향성, 자율성으로 요약하였다. Caplow(전병재·안계춘·박종연, 1995에 인용됨)는 하나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전문직에 대한 과정접근법(process approach)을 택하면서,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를 ① 무자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뚜렷한 성원자격을 규정하는 전문직 단체의 설립, ② 과거를 버리고 독점을 주장하고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얻기 위한 직업명의 변경, ③ 무능력자를 규제하고 내적 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주장하는 윤리헌장 선포, ④ 전문직 직함의 사용을 제한하고 나중에는 자신들 영역 내에서 무자격자의 직업활동을 불법화하고 법적 인정을 얻기 위한 정치적 운동의 네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전문직과 전문직화에 대한 설명은 무척 다양하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은 경우 배타적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 그리고 이를 통한 전문직의 수준 향상과 사회 활동을 양자 모두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다.

간호(nursing)가 누구나 일상에서 행하는 모습에서 직업으로 분화된 이후 전문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배타적 조직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더욱 대내외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꾀하였다. 우리 나라에 직업적 간호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9세기 말 서양의 근대적 보건의료와

병의원이 한반도에 실현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점점 더 많은 한국인이 정규, 비정규 간호교육을 받고 직업으로 간호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대내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간호단체의 출현이 있었다. 그중 한국인 간호부(看護婦)가 참여한 것으로는 1923년 결성의 '조선간호부회'가 처음이고 연이어 이듬해인 1924년 '조선간호부협회'가 결성되었다.²⁾

'조선간호부회'와 '조선간호부협회'는 한국인 간호부가 참여 또는 주도하여 결성한 초기의 간호단체로써 이들 단체의 행적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당시 한국 간호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중 '조선간호부회'에 관련된 것은 대한간호협회에서 기원을 이 단체에 두고 있는 만큼 비교적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조선간호부회'가 쇠퇴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적으며, 특히 '조선간호부협회'는 처음으로 한국인들끼리 결성하고 이끝어간 간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 존재 사실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다. 즉, 한국 간호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취약하거나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 1) 일제시대 면허 간호인력의 공식 명칭은 '간호부(看護婦)', 면허 조산인력의 공식명칭은 '산파'였다. 본 글에서는 당시의 간호부, 산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 2) 이전에도 한반도 내(內)에서 결성된 간호단체는 있었다. 1905년 8월 부산에서 일본인 간호협회가 창립되었고, 1908년 3월에는 서양인 선교간호부의 모임으로 '재선졸업간호부회(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가 결성되었으며, 같은 해 5월 대한의원의 일본인 간호부견습생들은 '조선독업간호부회(朝鮮得業看護婦會)'를 결성하였다(이꽃메, 1999). 그러나 이들 단체는 모두 일본인과 서양인 등의 외국인인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므로 본 글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시간강사

2. 연구 목적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조선간호부회'와 '조선간호부협회'의 결성, 활동, 쇠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간호를 발전시키려는 한국인의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어떻게 좌절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간호 발전과정에 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조선간호부협회'가 한국 간호계의 집단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한국 간호의 현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사 동향과 연구 방법

1933년 조선간호부회에서 펴낸 '간호사'에서 조선간호부회의 결성과정과 10년간의 활동에 관하여 처음 정리하였다. 이후 1954년 대한간호협회에서 펴낸 '간호사', 이영복이 집필한 '간호사' 등의 간호 역사서에서는 조선간호부회에서 펴낸 '간호사'의 조선간호부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실어 왔다. 홍신영은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1972)에서 조선간호부회에서 발간한 '조선간호부회보'와 선교계의 잡지를 참고하여 조선간호부회의 활동을 밝힘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논문의 초점이 19세기 말부터 1970년 초까지 간호 교육과 제도가 발전해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선간호부회의 활동은 일제시대 간호교육의 변화에 조선간호부회와 서양인 선교간호부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언급되었다.

1933년의 '간호사' 이래 조선간호부회에 초점을 둔 본격적인 저술은 '대한간호협회 70년사'(1997)의 제 1장 '조선간호부회'이다. 여기서는 1933년의 '간호사'와 '조선간호부회보'를 주요 일차사료로 하여 조선간호부회에 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결성과정과 활동에서 서양인 선교간호부들의 위치, 회의 발전 과정, 국제간호협의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가입을 둘러싼 일본과의 조정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해석을 하였다.

이상의 저술과 연구는 모두 '조선간호부회'에 관한 것이었고, '조선간호부협회'는 그 명칭조차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 뜻에는 '일제시대 우리 나라 간호제도에 관한 보건사적 연구'(1999)에서 조선간호부협회의 존재를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하여 밝혔을 뿐 아니라, 당시 선교계에서 발간된 잡지와 일간지의 관련 기사를 통하여 조선간호부회의 활동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글은 일제시대 간호전문직단체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것보다 더 알려졌다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글에서는 먼저 조선간호부회보와 조정환 역 '간호사'를 중심으로 조선간호부회의 결성 과정과 활동을 정리하였다. 1930년대 조선간호부회가 쇠퇴하는 과정에 관하여 당시 일간지와 잡지의 관련 기사와 일본제국간호부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조선간호부협회에 관하여는 동아일보 등의 관련 기사를 통하여 결성과 활동을 정리하였다. 조선간호부협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중심인물의 이후 행적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조선간호부회

(1) 조선간호부회의 창립

1923년 4월 간호부의 전문직단체인 '조선간호부회(The Korean Nurses' Association)'가 세브란스 연합의원에서 결성되었다. 조선간호부회의 창립회원은 선교계 간호학교를 졸업한 17명의 한국인 간호부와 약 2배 되는 서양인 간호부였다. 조선간호부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서양인 선교간호부 셰핑(Shep-ping)이 추대되었다. 창립 당시의 조선간호부회는 누구든지(선교계) 간호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었다(조선간호부회, (1925) 조선간호부회보. 대한간호협회, 1996에 인용됨).³⁾

조선간호부회의 기원은 1908년 서양인 선교간호부회의 모임으로 결성된 '재선졸업간호부회(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재선졸업간호부회는 일본인 졸업간호부와의 구별을 위하여 1911년 '재선서양인 졸업간호부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10년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1922년 이 단체는 그대로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과 서양인 간호부의 혼합체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23년 '조선간호부회'가 결성된 것이었다. (대한간호협회, 1996)

조선간호부회의 창립은 서양인 선교간호부들이 주도하였다. 그것은 조선간호부회가 서양인 선교간호부의 모임에서 이어진 것이었고, 조선간호부회의 기반이 된 선교회 병원과 간호학교

3) 조선간호부회에서는 어느 간호학교 졸업생이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간호학교'는 선교계 간호학교를 의미했다. 창립과 활동이 모두 서양인 간호부, 선교계 간호학교와 그 졸업생, 그리고 선교계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교계 간호학교 졸업생이 아니었던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에서 서양인 간호부가 한국인 간호부를 교육,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다(대한간호협회, 1996). 서양인 간호부들이 한국인을 포함시킨 단체를 새로 만든 것은, 선교계에서 보구녀관 간호부양성소를 필두로 정규간호학교를 세우고 1908년부터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었기에 이제 한국인 간호부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이기에 친목의 성격이 강했을 자신들의 단체는 그냥 놓아두고⁴⁾, 자신들이 학교와 병원에서 그렇듯이 한국인을 가르치고 이끄는 위치에서 조선간호부회를 성장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간호부회 내에서 한국인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 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익힐 수 있었으며, 협회 내에서의 발언권을 키워왔다(대한간호협회, 1996).

(2) 조선간호부회의 활동

1926년 4월 조선간호부회 제4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하여 재선서양인졸업간호부회는 조선간호부회에 흡수, 통합되었다(조선간호부회(1926, 9). 1926년 4월 25일 제4회 회록. 조선간호부회보 2권. 5-6). 조선간호부회와 재선서양인간호부회의 통합은 일국일단체(一國一團體)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ICN 가입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인 간호부들로서 그들의 것인 이 간호부회에 더 많은 취미를 가지게 하겠다" 의도도 있었다(Duck & Stuart, 1933). 조선간호부회에서는 서양인과 한국인이 함께 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임원 구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그것은 회장과 서기 1인, 회계 1인은 서양인이 하고 부회장과 서기 1인, 회계 1인은 한국인이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임원 개선의 결과 회장 세평, 부회장 김영실, 회록서기 김복신, 통신서기 나은덕, 원회계 고수도, 부회계 리양숙, 교육적 총무 벅쓰(Butts), 가사간호적 총무 쉬일즈(Shields), 공중위생총무 보딩(Bording), 만국연합회 총무 세평 등이 선임되었다(대한간호협회, 1996).

재선서양인졸업간호부회가 흡수, 통합됨으로써 조선간호부회는 조직과 활동 면에서 질적 비약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조직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교육적 총무, 가사간호적 총무, 공중위생 총무 등이 생겼다. 이들은 선교회 병원과 간호학교 등에서 간호교육과 간호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또한 각 도에 산재한 선교계 의료기관에서 조선간호부회 정기

총회에서 한 해의 간호교육과 간호사업을 보고하게 되었다(조선간호부회(1926). 1926년 4월 25일 제4회 회록. 조선간호부회보. 대한간호협회, 1996에서 인용됨). 이같이 각 지방의 선교회 간호학교와 병원의 사업을 보고 받음으로써 조선간호부회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지부를 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국제간호부회에서 요구했던 조건, 즉 '일국을 대표하는 간호조직체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좀더 근접하게 되었다(대한간호협회, 1996).

조선간호부회의 면모는 1928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간호부회 회칙과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다. 조선간호부회의 전국적인 대표성과 관련해서 볼 때 '회칙과 급 세칙'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간호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회의 목적과 졸업생 간호부로 면허장이 있어야 한다는 회원의 자격에 있어서 ICN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기나 회계의 임명에서 보듯이 한국인과 서양인 사이의 인적 균형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회의 목적 중 하나를 '의술로 말미암아 조선사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함'으로 하고, '기독교적 선량한 인격이 유한 졸업생 간호부로서 면허장이 유한 서양인이거나 조선인'이어야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집회를 예배로 시작하도록 한 기독교적 색채인데(조선간호부회(1928). 조선간호부회 회칙 급 세칙. 조선간호부회보 9호. 10-11) 이는 회가 표방하는 전국적인 대표성과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공식적인 표현에서 지워졌다. 이렇듯 1929년 확정된 '조선간호부회 회칙과 세칙'은 조선간호부회 조직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대한간호협회, 1996).

조선간호부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우선 『조선간호부회보』의 발간을 들 수 있다. 『조선간호부회보』의 발간 목적은 일반 민중의 질병과 병고를 없애서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간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업의 이상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한국인과 서양인 간호부 모두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인쇄하여 한 권에 묶었으며, 발간 회수는 1년에 4차 즉 계절별로 출판되었다. 『조선간호부회보』는 1925년 처음 발행되어 1934년 34호까지 만들어졌다(대한간호협회, 1996).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조선간호부회보를 발간하는 이외에 조선간호부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행한 활동은 간호교육수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간호교육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1926년에는 선교회 간호학교의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을 개선하며 통일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입학자격은 중등학교 2학년 수료로 하고, 3년 과정에 교과과정과 시험과목까지 일치

4)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23년 한국에 있는 면허 간호부의 수는 일본인 420명, 한국인 66명, 기타 외국인 21명이었다(이꽃매, 1999).

시킴으로써 하였다.⁵⁾ 또한 한국어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도 노력하여 맥스웰과 톰의 공저 『실용간호학』과 갓너 저(著) 『공중위생간호학』과 닥과 스튜워드의 공저 『간호사(看護史)』 등 3권의 책을 번역, 출판하였다(대한간호협회, 1996).

조선간호부회는 1920년대에 조직의 정비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어느 정도 이룬 후, ICN에 가입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조선간호부회를 이끌고 있던 선교계 서양인 간호부들은 열악한 조선의 간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국제적 인정과 협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동시에 한국의 간호사업과 건강 향상에 쏟은 자신들의 땀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자 하였다. 1929년 조선간호부회에서는 ICN에 회원이 되기를 신청하고 통신서기 세평, 이효경, 이금전 등 3인을 대표자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열린 대회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선간호부회의 국제간호협회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대한간호협회, 1996). 그 이유는 국제간호협회에서는 1국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1928년 12월 결성된 일본간호부협회에서도 가입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었다.⁶⁾ 국제간호협회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간호부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간호협회 가입을 위하여 조선간호부회와 일본간호부협회가 협의를 한 결과, 조선간호부회는 조선간호부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본간호부협회와 함께 1932년 일본제국간호부협회를⁷⁾ 결성하였다. 일본제국간호부협회는 1933년 제7회 국제간호협회 대회에서 가입을 승인 받았다.(龜山美知子, 1993)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간호부 넬슨과 로젠버거는 한복을 입고 브뤼셀에서 열린 ICN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가입을 지켜보았다.(Korea's Representatives at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Brussels(1933.9). The Korea

Mission Field)

(3) 조선간호부회의 쇄퇴

1933년은 조선간호부회 활동의 정점이자 침체의 시작이었다. 그해에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ICN 가입, 조선간호부회 제11회 정기총회 대구동산병원에서 개최(전조선간호회 대구에서 개최(1933년 5월 10일, 동아일보), 닥과 스튜워드 공저인 "A Short History of Nursing"(1931)을 번역하고 한국 간호사를 덧붙인 "간호사(看護史)"를 출판하는 등(Dock & Stuart, 1933) 굵직한 사건들을 치른 후 조선간호부회의 활동은 많이 정체되었다. 그 까닭은 일단 ICN 독자가입이 좌절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조선간호부회 설립 이후 ICN 가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회원들로서는 조선간호부회의 이름으로 ICN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일본제국간호부협회를 구성하는 단계 중 하나가 된 후 조선간호부회는 이전의 독자적 행보에 점차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4년 조선간호부회보에서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규칙과 부칙'을 실고, 조선간호부회의 명칭을 '조선간호부협회'로 변경하였으며 영문 명칭의 'of Korea'가 'in Korea'로 바뀐 것에서 나타난다(대한간호협회, 1996).

그 외에도 조선간호부회의 자율성이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제약을 받았음은 1937년 이정애, 산두일, 롤란드의 런던 ICN 대회 참석 과정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조선간호부회 부회장이던 이정애는 1936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제국간호부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런던 대회 참석을 승인 받고 비용 일부를 지원 받았다(Lawrence, E. M.(1937.5). 세브란스병원의 간호부와 간호. The Korea Mission Field. 103-104). 즉, 조선간호부회는 주요 활동에 관하여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과 함께 활동비를 받는,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산하단체 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욱 나빠서 조선간호부회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힘들었다. 1937년 7월 3일 경성을 출발, 시베리아를 철도로 경유하여 9월 19일에서 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회 ICN 대회에 참석하고 대회 후에는 여러 나라 도시를 방문하여 보건사업과 학교위생 시설을 시찰한 이정애의 ICN 대회 참석과 활동은 국내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참석 전후의 전 과정이 여러 번 사진과 함께 신문지상에 보도될 정도였다.⁸⁾ 그러나 이정애의 ICN

5) 실제로는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한다는 것만 통일할 수 있었고, 입학자격, 교과과정 등은 지원자의 수준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달랐고, 대부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 인가의 중요 조건은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병원시설 등이었는데 10개 내외의 선교계 간호학교 중에 총독부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산과간호부양성소(1924년), 평양연합기독병원 간호부양성소(1931년), 원산구세병원 부속간호부양성소(1942년) 등 3개뿐이었다(이꽃매, 1999).

6) 일본에서도 1925년 핀란드에서 열린 ICN 대회에 간호부 두 명을 파견하는 등 국제간호협회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국제간호부대회 핀란드에서(1925년 8월 15일) 동아일보).

7) 당시 일본제국이라는 명칭은 제국주의 일본에 속하는 모든 지역, 즉 일본 본토와 한반도, 대만을 아우르는 명칭이었다. 일본 본토만을 일컬을 때는 흔히 '내지(内地)'라고 표현하였다.

8) 성직 백의의 천사를 세계대회에 반도려인, 이화여자전문가사교 교수 이정애씨, 금하 국제간호부 총윤순희씨에 출석(1937년 6월 9일) 매일신보.; 조선의 보건을 국제회의에 제출, 이정애씨 런던 향발(1937년 6월 10일), 동아일보; 간호부대표 이정애씨 출발

참석을 중요 기사로 보도한 그 어디에서도 조선간호부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선간호부회 부회장이었던 이정애가 대외적으로 조선간호부회 대표임을 공식화할 수 없고 한 명의 '조선인' 신여성으로 국제대회에 참석할 것이 될 정도로 식민지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다.

일제가 1931년 9월 중국대륙 침략을 이정표로 지배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한국은 종전의 산미(産米) 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였고, 일본제국주의는 군사적 파쇼체제를 확립하고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서양의 선진제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정책도 일제의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 확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일본은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양인 선교사들을 속속 강제출국 시켰고(대한간호협회, 1996) 이는 조선간호부협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서양인 선교계 간호부들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협약해지는 분위기에서 조선간호부회를 지도하며 일제의 방패가 되어 주던 서양인들마저 한국을 떠남으로써 한국인 간호부들끼리 회합을 가지고 회를 지속시키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는 어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인 단체에서 마찬가지였다.

2. 조선간호부협회

(1) 조선간호부협회의 성립

'조선간호부협회'는 한신광, 김금옥, 정중명 등 경성에서 활동하던 8명 한국인 간호부의 발기로 1924년 1월 26일 창립되었다. 창립 총회는 오후 7시 서울시 인사동 중앙예배당에서 간호부 뿐 아니라 "이에 찬동하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초기 간호부협회의 회원은 약 30여명이었고, 초대 회장은 한신광이었다(조선간호부협회는 명 26일 중앙교회서 개최(1924년 1월 25일). 동아일보).

조선간호부협회 발기인들은 조선간호부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1924년은 조선간호부회가 결성된 다음해였으며, 발기인인 한신광과 정중명은 모두 선교계 간호학교 출신인데다가 한신광은 당시 한국 간호계를 이끄는 선교간호부 중 하나인 로젠버거와 함께 태화여자관에서 보건의호사업을

(1937년 7월 5일). 동아일보; 연구자료 모은 논문을 수행(擧行), 세계간호부대회에 참가할 이정애씨 5일 출발(1937년 7월 6일). 매일신보.; 간호부대표 이정애씨 귀국(1937년 9월 23일). 동아일보.; 국제간호부회의에 빛날 조선대표 이정애씨와 일문일답(1937.8). 여성. pp. 60~61(신영숙, 1989에서 인용됨).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창립 총회를 선전하면서 "경향을 물론하고 간호부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모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에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 회에 입회는 다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들 한국인 간호부들이 조선간호부회와 별개로 간호부로 일하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망라한 '다른'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간호부협회를 조직한 이유는 협회의 창립 취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한신광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에 간호부가 생긴지는 이미 오래이나 아직까지 간호부의 천직을 위하여 간호부 자신이 활동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여기던" 중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조선간호부협회를 창립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조선간호부는 이때까지 병원의 고용살이를 하는 외에 아무 것도 사회를 위하여 일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천직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끼리 상당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하여 이번에 간호부협회를 발기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 힘도 없으나 다만 크리미아의 여신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자 합니다(간호부의 협회 발기(1924년 1월 22일). 동아일보).

조선간호부협회 창립자들은 간호의 천직을 다하고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데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 함은 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하기 위하여 협회를 만들었다. 즉, 사회 활동으로 간호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한국인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조선간호부협회가 결성된 것이었다.

(2) 조선간호부협회의 활동

조선간호부협회는 "(서울)시내 견지동 16번지"에 "임시 사무소"를 두고(조선간호부협회는 명 26일 중앙교회서 개최(1924년 1월 25일) 동아일보)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가정의 위생사상을 보급하며 외로운 고아와 직업부인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 간호부의 직업소개 등" 크게 보건의교육, 보육사업과 간호직 알선의 세 가지를 계획하였다. 이중 보건의교육과 보육사업은 모두 간호부가 할 수 있는 사회봉사 차원의 일이었으며, 간호직 알선은 간호부들 자신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조선간호부협회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회원의 현실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고자 하였다.

조선간호부협회의 능력과 사회적 성격은 1925년 1월 31일 서울시 경운동 천도교 기념관에서 오후 7시 반에 거행한 제1회 창립기념식에서 잘 나타난다. 협회에서는 되도록 많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권 5백여 장을 배부하고 무료 입장을 하도록 했는데, 『동아일보』에 2번이나 기념식이 기사화되어서인지(간호부협회 창립 제1회 기념일(1925년 1월 24일). 동아일보; 간호부협회 창립 1주년 기념식(1925년 1월 31일). 동아일보) 1천명 이상의 군중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1부는 기념식, 제2부는 여흥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 오후 10시경 “대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제1부 기념식

개회사, 취지	한신광(협회 회장)
연혁	김학성
축사	박창훈(조선총독부의원 의사)
축사	구영숙(세브란스의원 의사)
답사	김수월(협회 회원)

제2부 여 흥

인정극	‘회원중으로 향촌생활과 도시생활’
바이올린	독주, 합주
이부합창	성삼석, 윤보명
무도	이정호, 이일순
가극 “보선(寶船)”	협회 회원
사회극	“본회 사업”

1부에서는 조선간호부협회가 만들어진 동기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함으로써 기념식의 모습을 갖추었고, 2부 ‘여흥’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이부합창, 무용 공연과 함께 일반인에게 간호부의 생활과 협회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극의 형식을 빌었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 한국인의 근대화를 지향하거나 민족적 각성을 추구하는 여러 대중공연에서 흔히 취한 것이었다. ‘인정극’인 ‘회원중으로 향촌생활과 도시생활’에서는 농어촌과 도시에서 각각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펼쳐 보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마지막 순서인 사회극 ‘본회 사업’에서는 “동회의 창립된 동기와 장래 사회에서 봉사적 정신과 희생적 실행으로 하여 나아갈 사업”을 그림으로써 협회의 창립 취지와 지향하는 바를 일반인에게 생생히 전달할 수 있었다(간호부협회 창립기념식(1925년 2월 2일). 동아일보).

제1회 창립 기념식을 성공리에 개최한 조선간호부협회에서는 그해 여름에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진행시켰다. 먼저 7월

4일에는 위생강연을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유료로 하였다. 오후 8시에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10전씩의 입장료를 받고 열린 강연회는 ‘중앙위생조합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보건교육과 음악공연이 번갈아 가며 진행되었다(위생강연 금야, 조선간호부협회 주최, 중앙위생조합 연합회 후조(1925년 7월 4일). 동아일보).

- | | |
|----------------|----------|
| 1. 주악 | 한등죽양 |
| 2. 육체의 정신 | 의학사 김전식 |
| 3. 오케스트라 | 의전 YMCA |
| 4. 유영(游泳)과 해수욕 | 여의 유명준양 |
| 5. 독창 | 정순철 |
| 6. 가공할 화류병 | 의학박사 박창훈 |

보건교육에 관하여 제목과 연자 이외의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육체의 정신’은 근대서양지식을 기반으로 한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유영과 해수욕’은 건강에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가공할 화류병’은 당시 한국사회에 큰 문제였던 성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을 것이다. 또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 계열에서 근대적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을 발전시키고자 대중교육을 하던 맥락을 잇고 있었다.

조선간호부협회는 이외에도 홍수로 인하여 한강 연안에 심한 재해가 발생하자 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과 연합하여 구호활동을 폈다(여성단체 진력: 조선간호부협회 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의 세 단체가 연합하여(1925년 7월 21일). 동아일보). 이러한 대중 상대의 보건교육, 재해구호는 대사회적으로 간호활동을 하고자 한 협회의 취지에 걸 맞는 것이었다.

(3) 조선간호부협회의 쇠퇴

1925년 여름 이후 조선간호부협회의 활동은 전혀 드러난 것이 없다. 그 원인은 협회의 중심 인물을 추적함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을 맡은 한신광의 경우, 1902년에 태어나 1923년 동대문부인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태화여자관에서 보건간호사업에 종사하였고 이듬해에는 산파 면허를 취득하여(9) 부업으로 조산활동도 하였다. 한신광은 이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가르치며

9) 한신광은 1923년 8월 20일자로 제1197호의 산파면허를 취득하였다(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1923년 9월 3일).

일본 유학간 오빠의 학비를 보조하는 성실한 여성이었고, 동시에 간호부로서의 자부심과 꿈도 있었다. 즉, “처음에는 간호부 생활이 꽤 참담한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에 접촉하면서 간호부의 생활은 참으로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골 농촌 같은데 까지라도 가서 위생사상을 보급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간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벽오지에서 보건의업을 하겠다는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간호부의 생활, 대화진찰소 한신광양(1925년 2월 18일).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간호부협회를 결성하여 초기 회장으로써 여러 사업을 벌였다.

한신광은 1925년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일본에 갔기 때문에 조선간호부협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신광의 도일(渡日)이 조선간호부협회 침체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신광은 2년 후인 1927년에 귀국하였고, 귀국 후에는 간호단체 활동이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신광은 이미 1919년 삼일운동 당시 고향 진주에서 만세행렬에 참여하여 2개월간 옥고를 치른 적이 있는 민족의식이 투철한 여성이었다. 그것은 1927년 귀국한 이후에 근우회(權友會)에서 상무로 일하는 등 민족주의계열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데서 잘 나타난다. 1928년 12월 광주 학생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학생만세운동을 주동하여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되어 3개월간 감금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인도 받았다(삼일여성동지회, 1980).

한신광이 간호단체활동에서 민족해방운동으로 행보의 중심을 전환한 것은 언뜻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래 조선간호부협회를 설립한 것도 사회활동을 하고자 했으므로 두 가지 활동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한신광이 조선간호부협회를 유지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의였건 타의였건 식민지 한국의 현실에서 간호단체활동 보다는 민족해방운동에 무게를 두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간호부협회의 또 한 명의 주역인 정종명(鄭鍾鳴) 역시 행적에 있어서 간호부보다는 민족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였다. 정종명은 189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배화여자학당을 다니다가 17세에 중퇴하고 의학과 결혼하였다. 2년 후 장남을 낳는 등 잠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이 사망하는 불행에 겪었다. 이후 자활의 길을 모색하여, 기독교 전도사의 주수로 있다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여 25세에 간호부가 되었다.

“약간 얽은 얼굴에 능란한 구변과 재치가 있었고 때로는 센티멘탈한 인정미가 넘치는” 인물이었다는 정종명은 조선간호부협회 결성 이전부터 조직활동을 시작하였다. 1919년 삼일운

동 후에는 여자고학생 상호회를 조직, 농촌에서 상경하는 부녀자 고학생에게 간호부 직업을 소개하거나 학교를 주선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고 점차 민족운동 참여가 활발하여 1924년에는 여성동우회 위원, 1928년에는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 외에도 1920년대에는 좌익이었던 천두상, 신철 등과 결혼, 동거생활을 하며 사상적 동지로 살았다. 1931년에는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돈 5천원만 있다면 큰 집을 구하고 산파회 간판을 내걸어 조선산업을 해보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 희망은 이루지 못한 듯 하고 1939년에는 아들과 함께 만주에서 살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45년 해방 후에는 조선부녀총동맹을 결성하여 합남대표로 참가하였다(박노아. 만나보기 전과 만나본 후, 정종명씨(1930.3). 별건곤 63-64.).

1925년 이후 조선간호부협회가 쇠퇴하게 된 것은 협회 내부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조선간호부회의 성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조선간호부협회의 주역인 한신광과 정종명이 이후 자신들의 역량과 무게의 중심을 협회의 일 보다 민족운동에 주력한 것을 통하여 볼 때, 식민지 한국의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전문적 발전보다는 민족운동을 우선으로 하거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III. 결 론

19세기 말 한반도에서 서양근대보건의료제도가 시행되고 병원이 설립되면서 그 안에서 한국인이 간호직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 보구녀관 간호원양성소를 필두로 정규 간호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14년에는 산파와 간호부 면허제도가 시작되었다. 1923년 한국인 면허 간호부는 66명, 산파는 42명이었으며(이꽃메, 1999) 그 몇 배에 달하는 수가 면허는 없어도 정규, 비정규 간호교육을 받은 후 간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간호직의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 1924년 조선간호부협회의 결성을 낳았다. 그러나 두 단체는 주역과 활동에 있어서 판이하게 달랐다. 조선간호부회는 30여명의 서양인 선교간호부들이 자신이 이끌고 있던 선교계 간호학교 졸업생 17명을 데리고 만든 단체였고, 이후 활동에 있어서도 서양인 선교간호부들이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조선간호부회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간호 수준 향상을 통한 ICN 가입에 있었다. 간호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러했고, ICN 가입을 위하여 재선서양인졸업간호부회와 통합되었으며,

일본제국간호부협회의 산하단체가 되었다. 조선간호부회는 일제시대 어용이 아닌 직업단체로는 드물게 약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이 강압성을 더하고 회를 이끌던 서양인선교사들이 강제출국 당하면서 쇠퇴하고 말았다.

그 반면 조선간호부협회는 한국인 간호부들이 만든 단체였다. 창립 취지도 사회활동을 통하여 간호의 역할을 할 것을 표방하여 보건교육 등의 대중활동에 치중하였다. 조선간호부협회가 활발히 운영된 것은 약 2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조선간호부협회의 주역들은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으로 행보를 옮겨 피식민인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조선간호부회와 조선간호부협회의 결성과 활동은 1920년대 한국에서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한 두 종류의 움직임의 반영한다. 한쪽은 내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제 간호계의 인정, 다른 한쪽은 사회활동을 통한 대중의 인정을 꾀하였다. 비록 방법은 달랐지만 두 단체 모두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상황은 공통적으로 두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질곡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간호 발전의 역사에 국가적 차원의 영향, 우리 나라 일제시대의 경우 식민지라는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해 준다.

한편, 일제시대 이후 한국의 간호사들에게 조선간호부회는 존재했지만, 조선간호부협회는 잊혀져 있었다. 한신광 등 조선간호부협회에 관여했던 한국인 간호부들은 해방 이후에도 활동했으며, 협회는 조선간호부회와 달리 창립 과정부터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당대의 기사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후로는 간호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반면 해방 이후 새롭게 발족한 대한간호협회가 1954년 돌연히 조선간호부회를 계승하기로 함으로써 조선간호부회는 한국 간호전문직단체의 기원으로 공식화되었다(대한간호협회, 1996). 대한간호협회가 조선간호부회를 계승하기로 한 이유로는 물론 한국인이 참여한 첫 간호단체이자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간호협회가 대중의 인정을 도모한 조선간호부협회 보다는 내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선진 간호계의 인정을 도모한 조선간호부회를 정통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창립 과정과 활동, 소멸 이후 중심인물의 행적에서 나타나듯이 조선간호부협회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전문직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한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과 이에 대한 인정이 내부에서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면에서 중요한 활동이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197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침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모습을 다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간 한국 간호계에서 조선간호부회만을 기억하고 조선간호부협회를 잊고 있었다는 것은 간호계에서 그만큼 내적 활동에 치중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제 75년이 지나 조선간호부협회의 존재가 새롭게 발견된 오늘,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은 좀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간호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일차사료

조선총독부관보. 1923.9.3.

동아일보. 1924.1.22., 1924.1.25., 1925.1.31., 1925.2.2., 1925.2.18., 1925.3.23., 1925.7.4., 1925.7.21., 1933.5.10., 1937.6.10., 1937.7.5., 1937.9.23.

매일신보. 1937.6.9., 1937.7.6.

별건곤(別乾坤). 1930.3.

조선간호부회보 2권(1926), 9호(1928)

The Korea Mission Field. 1933.9., 1937.5.

다크, 라빈니아·스투워트, 이사벨. 조정환 역(1933). 간호사.

서울: 조선간호부회. 1933

2. 이차문헌

대한간호협회 교육부(1954). 간호사.

대한간호협회(1996). 대한간호협회 70년사.

삼일여성동지회(1980).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이꽃메(1999). 일제시대 우리 나라 간호제도에 관한 보건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학위논문.

이영복(1995). 개정증보 간호사. 수문사.

전병재·안계춘·박종연(1995).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사회비평사.

정요섭(1992). 한국여성운동사-일제하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일조각.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신영숙(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홍신영(1972).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龜山美知子(1990). 看護史. 東京.

- Abstract

key concepts: professionaliza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nurses' association, Japanese Colonial period

A Study on Two Nursing Organization: Choseon Ganhoboohoi(朝鮮看護婦會) Tried to Improve the Standard of Nursing and Choseon Ganhoboohyophoi(朝鮮看護婦協會) Tried to do Social Activities

Yi, Ggod Me*

Two nurses' associations were organized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One was Choseon Ganhoboohoi(朝鮮看護婦會,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started in 1923 and the other was Choseon Ganhoboohoiphoi started in 1924. Two nursing associations were very different in their members and activities. Choseon Ganhoboohoi was organized and lead by Western missionary nurses in Korea and their Korean pupil nurses. The aim of Choseon Ganhoboohoi was to become a member of ICN. Choseon Ganhoboohoi united with the Western Graduate nurses' Association in Korea, tried to raise the standard of nursing education, and became a branch of Japan Imperial Nurses' Association. All was to become a member of ICN. It continued 15 years and was quite active. But after the half of 1930s Japan's ruling policy became more and more suppressive and western missionaries were expelled from Korea so it could not but discontinue it's activities.

Choseon Ganhoboohoiphoi(朝鮮看護婦協會) was organized and lead by Korean nurses. The aim of it was to do the role of nurses by social activities. So it tried health education for the public. It continued only about 2 years. But the leaders of Choseon Ganhoboohoiphoi moved to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Korean liberation movement and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colonized women.

The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of Choseon Ganhoboohoi and Choseon Ganhoboohoiphoi were two trends to develop

Korean nursing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ormer asked for international cognizance by the raise of nursing standard, and the latter asked for national cognizance by social activities. Although two nurses' associations were different in their ways but quite same in the aspect that both tried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 Korea. But the colonial situation prevented them from continuing their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 colonial situation of national level influenced deeply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profession.

* Lecturer, Sooncheonhyang University